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의회를 위하여

의정단상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 9대 의회는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을 탄생시켰고, 행자위원장에는 시민사회 전문가를, 환경복지위원장에는 환경 전문가를,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에너지 전문가를, 교육문화위원장에는 문화 전문가를 필두로 한 드림팀을 꾸렸다.

필자는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시의회 역대 최연소 부의장이라는 타이틀은 큰 영광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이 칼럼을 빌어 부의장으로서의 포부와 다짐을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최근 몇 년간 긍정적인 여러 변화를 경험했지만,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부의장으로서,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의 약속들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첫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시민들이 시정과 의회 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넓히겠다. 이를 통해 광주시의 많은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소통 창구의 다양화를 통해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협력과 화합을 중시하겠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곳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조율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적 셈법이나 당리당략을 넘어, 오직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의회는 싸움의 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이 돼야 한다.

셋째,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광주는 인구감소, 교통 문제, 환경과 복지, 미래 먹거리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강하게 견제하고, 또 때로는 확실하게 협력할 것이다.

위의 약속들은 부의장 혼자 이뤄낼 수 없는 것들임을 잘 알고 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협력할 때에만 비로소 달성 가능한 다짐들이다. 이에 동료 의원들께 한 약속도 되새겨 본다.

의원 간 소통의 가교 역할과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것인데,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제2부의장실을 의원 사랑방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다.

광주시의회 9대 의회는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의원 23명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42만 광주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시민의 힘은 곧 의회의 힘이며,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의회의 발전을 이끌어간다.

더욱 강력하고, 더욱 투명하며, 더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9대 의회가 되는 그 길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모습의 부의장으로서 제 몫을 잘 해내 보겠다. 광주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2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하마가 수박 등 과채류를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서석대

지구촌 큰 잔치

"해방 조선의 아들·딸들아 힘껏 뛰고 맘껏 달려라." 1948년 6월 21일,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68명을 위한 환영식이 열린 서울역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들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2달여 앞둔 혼돈의 시기. 돈도 없고 나라마저 없었던 국민들에게 사상 처음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모습은 감격이었다. 선수단의 각오도 뜨거웠다. 연단에 선 이병학 총감독은 '체육정신으로 민족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12년 전인 1936년,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손기정은 '이번에도 우승기를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선수단이 런던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1인당 국민소득 50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선수단은 예산이 없어 미 군정의 도움을 받아 뱃삯을 마련해야 했다. 여정도 험난했다. 부산에서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간 뒤 상하이와 홍콩을 거쳐 런던까지 기차와 배, 비행기를 갈아타며 이동한 시간만 20여 일이 넘었다. "독립된 국가로 가슴에 단 내 조국의 국기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싶은 일념이 만든 기적이었다." 선수단을 이끌었던 정항범 단장의 회고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내는 글로벌 이벤트다. 인종과 성별, 국적, 종교의 차별도 없다. 단순한 경쟁의 장을 넘어 국가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평화의 도구로도 활용된다. 지난 1992년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내전과 정치적 위기 속에서 올림픽에 참가한 유고슬라비아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국제협력과 평화를 만들어낸 기적의 장이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도 냉전 시대, 동서화합과 남·북간 긴장완화에 기여한 평화의 올림픽으로 기억된다.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우리 시간 27일 오전 2시 30분 프랑스에서 막을 올린다. 불황 탓인지, 답답한 현실 때문인지 기대했던 열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올림픽은 지구촌 큰 잔치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143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비롯한 전 세계 1만 500명의 선수들도 온갖 역경을 딛고 장도에 올랐을 터다. 젊음과 패기로 무장한 선수들의 투지는 한편의 드라마다. 그들이 보여주는 공정한 경쟁도 우리에겐 소중한 가치다. 역사상 최초로 '성평등 올림픽'을 실현하고 '친환경 올림픽'을 보여주겠다는 프랑스, 불굴의 투지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든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용환 논설실장

社 說

신뢰 무너뜨린 무안공항 국제선 '노쇼'

무리한 추진 비난 받아 마땅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일환으로 전남도가 지난 5월 취항키로 한 '무안~일본 사가 정기노선'이 무산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전남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3월 무안군, 제주항공·진에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항공과 4월부터 제주(주 4회), 중국 장가계(주 4회), 연길(주 2회)을, 5월부터는 일본 사가 노선을 주 3회 운항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가 정기노선 취소와 관련, 제주항공 측은 국토부 정기선 운항 허가를 받았지만, 사가공항 측이 정기선 운항 시 정비, 급유 등의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정기노선 취항이 불발됐다고 한다.

그러나 취항 취소에도 불구, 전남도는 취항 계획 발표 이후 두 달 가량 어떠한 공지나 안내도 하지 않았다. 결국 공항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이용객들만 불편을 겪었다. 무안~사가 정기노선 취항을 기다리던 지역민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가 정기노선 취항 소식에 8월 초 여름휴가를 계획했던 이용객들의 휴가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무안~사가 정기노선 취항 불발은 전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성과위주의 행정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남도는 무안~사가 정기노선 취항 협약 당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취항이 취소된 걸 쉬쉬한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관문공항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중국 반한 감정 등의 여파로 국제선 정기노선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전락했다.

코로나19 종식과 해외여행 붐으로 무안공항도 정기노선이 확대되고 이용객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의 국제선 취항 '노쇼'는 행정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전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기선 확대 노력도 필요하지만 취항 불발 시 책임지는 대응도 절실하다. 한때 연간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던 무안공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용객과의 신뢰회복이 필요해 보인다.

충장로 '여름 축제' 상권 살리는 계기 되길

광주의 문화적 매력 보여줘야

26일과 27일 광주 충장로 5가 일대에서 '도깨비 여름 비어(beer) 축제'가 열린다. (사)충장상인회와 상가 상인들이 협업해 준비한 이번 행사의 취지는 관광객에게 덥고 습한 날씨를 날려버릴 시원함을 선사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복고풍 포장마차 콘셉트로 충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도깨비 여름비어 축제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맥주축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때 호남 최대 상권으로 각광받았던 충장로는 광주가 방사형으로 커지면서 2010년대 이후 상권이 크게 쇠퇴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충장로와 금남로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지난 2023년 3분기 기준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체 상가 공실률이 6.3%인 것을 감안하면 충장로 인근 상가의 공실률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더욱이 광주시가 임동과 어등산, 광천동 유스퀘어 등에 대형 유통시설을 유치키로 하면서 미래도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특색 있는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침체된 지역을 살리고 광주의 문화적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충장로 4~5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들이 직접 플리마켓을 꾸려 추진하는 '충장 청년 상생 마켓'도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다.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쇠퇴하는 충장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충분하다. 맥주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정기적으로 개최될 경우 충장로의 새로운 전통이나 명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 동구와 충장상인회 등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활력 넘치는 충장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축제를 마련해야 한다. OB맥주 광주공장이라는 광주만의 하드웨어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관광객과 지역민은 돈벌이만을 위한 축제보다 매년 여름이면 누구나 기다려지는 그런 축제를 기다린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